

#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속집 단청 연대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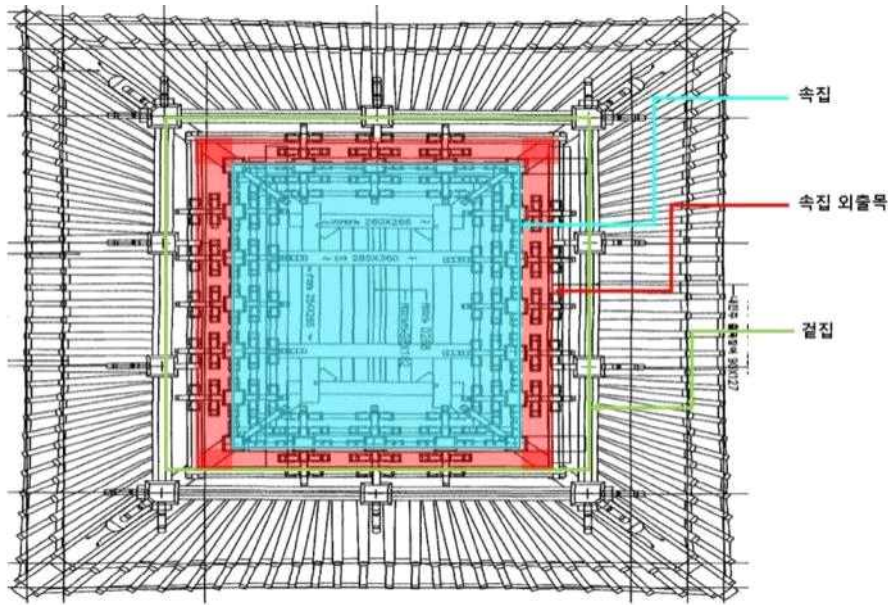
이수예(동국대학교 부교수)·전혜영(동국대학교 박사수료)

## 차례

- I. 머리말
- II. 적멸보궁 속집의 연혁
- III.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현황 및 특징
- IV.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연대 고증
- V. 맺음말

## I. 머리말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하, 적멸보궁)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서 독특한 건축양식을 인정받아 2018년 보물 제1995호로 지정되었다. 적멸보궁은 속집과 겹집으로 이루어진 이중구조 형식의 건물로(도1), 속집은 14세기 중·후반의 다포식 목조건축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후대에 겹집이 형성되면서 속집의 단청은 오랜 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었고, 이에 속집 외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고식으로 추정되는 단청의 흔적이 확인된다.



도1. 적멸보궁 양시도  
 (『월정사 적멸보궁 학술조사 보고서』, (주)조계종출판사, 2016, p.233.)

2021년, 적멸보궁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평창군청과 월정사의 지원을 받아 적멸보궁 안전진단과 속집 단청에 대한 고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글은 2021년 실시한 적멸보궁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분석한 것이며,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문양 및 기법에 대한 양식적 특징을 고찰 한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적멸보궁 외기도리에서 적멸보궁 중창에 관한 묵서 기록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묵서 기록과 함께 속집 단청과 유사한 단청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시공 연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 II. 적멸보궁 속집의 연혁

적멸(寂滅)이란 죽음, 입적, 열반을 뜻하며 번뇌가 소멸된 상태, 열반의 경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현재 적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소장처 앞의 예불을 올리는 법당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승려 자장대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부처의 사리와 정골(頂骨)을 나누어 봉안한 5대 적멸보궁이 있다. 경남 양산 통도사, 강원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이 이에 해당된다.

적멸보궁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그동안 사자암과 상원사의 증창시기를 기준으로 건립시기를 추정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외기도리 묵서에는 증창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 적멸보궁의 건립과 증창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묵서의 증창기록은 다음과 같다.



도 2. 적멸보궁 외기도리 묵서

貞觀十  
七始創  
五臺山重  
創上樑文  
城化六年  
戊子六月  
廿四日  
上樑重創  
嘉靖二十年  
辛丑六月初  
六日三重創  
天啟五年  
四重創  
順治六年  
五創九月  
日庚寅年

묵서 기록에 의하면, 정관 17년 시창하여 성화 6년 무자 6월 24일 증창, 가정 20년 신축 6월 6일 3중창, 천계 5년 4중창, 순치 6년 9월 경인년 5중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묵서기록과 함께 적멸보궁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시공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멸보궁 건립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오대산 관련 기록물로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와 「제1조사전기(第1祖師傳記)」가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3편, 탑상편, 「대산오만진신」에는 “(자장)법사는 정관 17년(643년, 선덕왕 12) 이 산(강원도 오대산)에 이르렀다.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고자 했으나 사흘 동안 날씨가 어둡고 흐려서 못 보고 돌아왔다가 다시 원녕사에 가서야 문수보살을 뵈었다.”고 하여 정관 17년은 자장이 귀국한 해를 말하며, 현재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창건연대를 비정하고 있다.<sup>1)</sup>

다음으로 성화 6년 무자 6월 24일 증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성화 6년은 성

1) 염중섭, 「사상 : 자장(慈藏)의 신라오대산(新羅五臺山) 개건(開建)에 대한 타당성 검토(2) -민지(閔漬)의 <제일조사전기(第一祖師傳記)>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43, 2015), p.22.

종 원년, 경인년(1470년)에 해당하고 무자년은 세조 14년(1468년)으로 성화 4년에 해당한다. 『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1466년) 윤3월 17일 무자 2번째 기사에는 세조가 상원사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

상원사(上院寺)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물거운(勿巨尹) 이철(李徹)·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김수온(金守溫)·김국광(金國光),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 등과 더불어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행궁(行宮)에 돌아와서 신숙주·한계희·노사신에게 명하여 문과 시장(文科試場)에 나아가서 참시(參試)하게 하였다.<sup>2)</sup>

또한 윤3월 28일 기해 3번째 기사에는 일본 국왕에게 글을 부치는데, 세조가 금강산의 자취와 사리의 기이함을 이야기하며 지방 순행하면서 거친 절들을 나열하고 있다.

뇌영(賴永)의 사자(使者) 중 수린(守蘭)이 돌아갔다. 임금이 일본 국왕(日本國王)에게 글을 부쳤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중략) 우리 나라에 명산(名山)이 있어서 금강산(金剛山)이라 하는데, 동쪽으로 큰 바다에 임하여 우뚝하게 깎여서 희고, 금(金)이 구름 밖에 솟아올라 높고 넓어서 이수(里數)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니… (중략) 요즘 내가 지방을 순행하고 인하여 이 산에 나아가서 삼보(三寶)에 침례(瞻禮)하였는데… 선학(仙鶴)이 쌍으로 날아 구름 가에 돌고 산중의 여러 절에 사리(舍利)가 분신(分身)하여 오색 빛을 모두 갖추었습니다.…(중략) 돌아오에 미쳐서는 낙산사(洛山寺)·오대산(五臺山)·상원사(上院寺)·월정사(月精寺)·서수정사(西水精寺)·미지산(彌智山)·용문사(龍門寺)를 거쳤는데 …”<sup>3)</sup>

2) 『世祖實錄』 38, “幸上院寺。王世子與孝寧大君(補)[補]、永膺大君 琰、勿巨尹 徹、蛇山君 灝、領議政申叔舟、上黨君 韓明澮、左議政具致寬、仁山君 洪允成、中樞府同知事金守溫·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士愼)[盧思愼]等隨駕。上還行宮。命叔舟、繼禧、思愼, 詣文科試場參試。”

3) 『世祖實錄』 38, “隣竝修聘, 禮固當然。第緣滄溟夔隔, 風濤爲梗。嘗遣一介, 中曹颺敗, 未達區區, 徒切悵恨。雖然境雖異而心則同。自當遙契, 奚迹之求? 我國有名山, 曰金剛, 東臨大海, 亭亭削白。金湧雲表, 高廣不知幾由旬。《華嚴經》所謂曇無竭菩薩, 與其萬二千菩薩眷屬, 常住設法者, 卽此山也。頃予省方, 因詣茲山, 瞻禮三寶, 未至山麓, 地爲震動, 行入洞門, 瑞氣彌亘, 祥雲繚繞。天雨四花, 大如桐葉; 甘露普灑, 草木如沐。日色黃薄, 眼界皆成金色。異香薰暢, 放大光明, 燦耀山谷。仙鶴雙飛, 盤旋雲際。山中諸刹, 舍利分身, 五色悉備。及設明揚勝會, 如上種種奇瑞重現。又有曇無竭菩薩, 現無數小相, 復現大相, 其長參天。暨還歷洛山、五臺、上院、月精、西水精、彌智山、龍門…”

조선 전기 승려 신미가 작성한 『오대산사적』의 「我朝本山事蹟」 내 권선문을 보면 1466년 10월 초5일에 중창된 상원사를 방문한 후 보궁에 올랐다고 한다.

“…上親幸金剛禮曇無竭 巡海而南 十月初五日親到本寺翌日都山 請衆三百餘名供養布施 諸庵及兩寺 散根其齋後上親幸至獅子庵 御袞龍祚上 寶宮行香拜禮供養布施 是夜放光動地瑞祥非一.”

여기서 처음 보이는 ‘보궁’은 현재 적멸보궁과 동일한 전각을 의미하는 것인지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원사를 중창하고 원찰로 지정한 세조는 일본 국왕에게 이에 대한 글을 부칠 만큼 오대산 사리의 기이함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또한 성화 6년의 기록은 상원사 중창 시기와의 맞물려있어 오대산 일대 상원사와 주변 암자의 건립시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대산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관계를 맺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발전해왔다. 오대산 월정사는 고려 태조 때 원찰로 지정되어 공양을 받았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오대산 불교의 중심이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옮겨지게 된다. 당시 상원사는 원찰로서, 왕실의 지원을 받은 나옹문도의 주도 아래 상원사와 주변 암자들이 중창되었다.<sup>5)</sup>

중대 사자암은 1401년 운설암이 태종에게 중창을 건의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완공 후 태종이 친림한 것으로 전해진다.<sup>6)</sup> 상원사는 세조의 지원을 받아 중창되었는데, 세조는 신미와 그의 제자인 학열, 학조를 삼화상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세조는 상원사 중창을 학열에게 맡기고, 관련된 권선문은 신미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왕실 원찰에 주석하면서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특히 학열은 학조와 함께 1465년(세조 11) 상원사와 1467년(세조 13) 낙산사, 유마사를 중창하였다. 상원사의 중창은 1465년 시작하여 1466년 완공되었다.

적멸보궁은 중대 일원으로 상원사, 주변 암자들이 중창되던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자암은 140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상원사는 1465년 중창

4) 평창군·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중대사자암, 위의 책, p.25.

5) 평창군·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중대사자암, 위의 책, p.18.

6) 『陽村集』卷13 記類 「五臺山獅子國牌補也」, “…千江之五臺山 南秀之 而去年夏 有北岳自是山來告曰 山之中臺有備以植勝果久矣日獅子國牌補也 據條之陽上下是者所由原創久而尙存觀者傷而是之重營衆心欣慶必倍於他所矣…上起三極所以安佛寓僧也下置二間所以爲門與洗閣也規模小欲而不冬十一月觀之以落其成蓋爲追先逝 推利後世物我均幽明 卿直爲文 以示永久…”

을 시작하여 1466년 완공된 것으로 볼 때, 적멸보궁의 속집 건립 시기는 1400년대로 추정된다. 또한 외기도리 묵서 기록에 따르면 적멸보궁은 속집은 ‘무자(1468년) 6월 24일’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적멸보궁 속집은 다포 양식, 공간, 강한 배흘림을 가진 기둥, 단집 뒤쪽 우물 반자의 조각 단청, 깃기둥 창방 뿔목의 조각 등이 조선 전기 건축양식과 일치한다. 특히 적멸보궁에 표현된 공간은 봉정사 대웅전(14세기 말~15세기 초), 서울 남대문(1394년), 개심사 대웅전(1484년)에서 확인되는 다포식 건물의 특징과 유사하여, 적멸보궁 속집이 이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건물임을 시사한다.<sup>7)</sup>

다음 4중창에 해당하는 천계 5년과 5중창 순치 6년과 관련해서는 17세기 적멸보궁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적멸보궁 모습을 파악해볼 수 있다. 1664년에 쓰인 윤선거(1610~1669)의 『노서유고』속집 권3「파동기행」에서는 ‘적멸보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적멸보궁이 철기와에 이중벽으로 되어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중대를 올라 사자암 금몽암을 지나 암자 위 수 십 보 조금 넘는 곳에 一畝가 있다. 철기와에 벽이 이중이었는데, 편액에 ‘적멸보궁’이라고 쓰여 있다. 보궁안에는 金像을 안치하지 않은 채 단지 佛影을 설치하고 雜色의 종이꽃을 어지럽게 꽃았을 뿐이다.<sup>8)</sup>

또한 적멸보궁 이중벽에 대한 기록은 1708년에 쓰인 趙德隣(1658~1737)의 『옥천선생문집』권7에서도 확인된다. 조덕린은 적멸보궁 규모를 10칸으로 서술하고 있으며<sup>9)</sup> 철기와와 이중벽으로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10)</sup>

또 다른 17세기 적멸보궁에 대한 기록으로는 정시한(1625~1707)이 1687년 10월 적멸보궁에 올라 쓴 『우담집』「산중일기」가 있다. 정시한에 의하면 현판의 글씨는 개성부 사람 홍명기가 아홉 살 때 쓴 것으로 당시는 29세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판에는 ‘경인오월일홍명기구세서’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정시한이 기록

7) 김관수, 「오대산 신앙과 건축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p.146~149.

8) 『노서유고』 권 3 「파동기행」, “七日 早登中臺 歷獅子庵金夢庵 庵上數十步許乃建一舍 鐵瓦重壁 扁曰寂滅寶宮 內不置金像 只設佛影 亂插雜色紙花而巳有釋蹟凜 凜立云 夢庵中有僧義珪獨居 乃凜之高足也.”

9) 『玉川集』 권7, 「關東錄」, “정찰은 모두 10칸인데, 단청은 푸른색과 금은으로 휘황찬란하여 눈이 어지럽다. 가운데에 塑像을 두지 않고 단지 빈 좌상 하나를 안치해 놓았을 뿐이다.”(이원석,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 『한국불교학』 제67집, 한국불교학회, 2013, p.197.)

10) 김관수, 위의 논문, 2013, p.146.

11) 『愚潭集』 「山中日記」, “…十步一休既上因大風不能詳觀 有空殿大書寂滅寶宮四字 卽開城府人洪命基九歲時所書 洪也時年二十九方 在開城云其家施綵刻畫異於諸寺人物飛禽走獸草木之形列於四壁及上 窮極其巧卽噴凜首坐所重創凜性淨之弟子而義圭卽凜之弟子云 家後壘石作堆釋迦佛頭骨所藏處云 坐地正中山勢擁護而穴

했던 당시 1687년에 홍명기의 나이가 29세였다면 9세였을 때는 1667년이어야 하나, 현판에는 경인 즉 165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외기도리 묵서와 정시한의 글, 현판에 쓰인 기록을 모두 종합해보면, 순치 6년 9월 경인년(1650년)에 5중창이 이루어졌고, 이때 ‘적멸보궁’이라 쓰인 현판을 제작하여 걸게 되었는데, 이는 경인 5월(1650년) 홍명기가 9세 때 쓴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또한 1664년 윤선거의 『노서유고』와 1708년 조덕린의 『옥천선생문집』에서 적멸보궁을 이중벽이라 묘사한 것으로 보아 이미 1664년 이전 적멸보궁은 속집과 겹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650년경에 겹집이 형성되고 외기도리에 묵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 檀園 金弘道(1745~1806?) <金剛四郡帖>에는 금강산과 오대산 등을 직접 답사하며 그린 70여 폭의 산수화가 있다. <금강사군첩>은 당시 오대산 일대의 가람배치나 건물양식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화첩이다. 이 중 1788년에 그려진 적멸보궁 그림을 통해 당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소규모 법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멸보궁 중도리 묵서에는 ‘정관 17년에 시원하여 건륭 32년에 이른다’<sup>12)</sup> 쓰여있어 중도리 수리시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6중창에 해당한다.



도 3. 적멸보궁 중도리 묵서

『中臺寂滅寶宮重創記』에는 건륭 32년(1767년) 연파 화상이 시행한 중수 기록이 있다. 당시 연파화상에 의해 지붕을 수리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연파화상이 중수한 적멸보궁은 김홍도의 <금강사군첩>보다 앞선 시기로 김홍도의 그림에 그려진 적멸보궁은 연파화상이 중수한 형태가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중대적멸보궁중창기』에는 1875년 7중창에 대한 기록이 있다. 7중창은 경성에서 온 혜은화상이 상원사를 중수한 다음 적멸보궁을 개건하였다. 1875년 중창 시에는 전체적인 가구가 개조되는 대규모 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瓦)를 바꾸고 집(桶)의 교체, 현가(軒架)의 보수, 단청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틈간의 철거, 방한용 외벽의 보완, 지붕의 확장과 동량, 기와의 교체

未豐厚案對顏遠.”(평장군·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중대사자암, 위의 책, p.27.)

12) 自貞觀十七年至乾隆三十二年

등 방풍 방한을 위한 외부공사가 중시되었고 단청의 수리, 장업 등의 내부도 일부 개조되었다. 이에 현재 적멸보궁의 공포, 기둥 등 내부 양식은 조선전기 고식이 유지되었지만, 외부는 19세기 말의 형식을 띠는 이중구조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표 1. 적멸보궁 중창 기록

	도서 기록	연도	기록 위치
시창	정관 17년	643년	외기도리 문서
중창	성화 6년 무자 6월 24일	1470년(성화 6년) 1468년(무자)	
3중창	가정 20년 신축 6월 6일	1541년	
4중창	천계 5년	1625년	
5중창	순치 6년 9월 일 경인년	1649년(순치 6년) 1650년(경인)	
6중창	건륭 32년	1767년	중도리 문서
7중창	1875년		『中臺寂滅寶宮重創記』

### Ⅲ.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현황 및 특징

#### 1. 현황

적멸보궁 속집에서 고식의 단청흔적이 확인되는 부재는 외출목 첨차, 소로, 살미이다. 속집 외출목의 단청은 겉집 적멸보궁 반자 안쪽에 감춰져 있어 비교적 안료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문양의 유추가 가능한 상태이다. 적멸보궁 속집의 단청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순각판과 공간에만 부분적으로 적색이 쓰였으며, 첨차, 소로, 살미 모두 뇌록바탕에 문양이 밝은 녹색으로 표현되었다.

속집 단청은 건물 네 면의 열화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전면과 후면은 문양의 흔적이 반전되어 나타난다(표 2). 이러한 현상은 적멸보궁 겉집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전면과 후면의 일조량과 풍향 등 자연적

13) 이원석, 위의 논문, p.200.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후 겹집이 형성되면서 속집의 단청은 오랜 시간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보존될 수 있었다.

적멸보궁 속집에서 후면 단청이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문양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다. 반면 전면과 동측면은 문양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안료의 변색과 박리·박락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좌측면은 순각판을 제외하고는 안료가 모두 탈락되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표 2. 적멸보궁 전면과 후면 단청의 열화상태

전면	
	
전면 주심장여	전면 살미
후면	
	
후면 주심장여	후면 살미

이렇게 각 면에 남아있는 단청 흔적은 다르지만, 부재별로 동일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어 각 면의 단청 흔적을 중첩하여 분석하면 부재별 단청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첨차, 소로, 살미에 그려진 문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적멸보궁에 사용된 문양과 색채, 기법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특징

### 1) 녹화여의두문(綠花如意頭紋)(도 2)<sup>1)</sup>

먼저 소로에는 뇌록바탕에 밝은 녹색을 사용해 부재 가장자리를 선으로 긋고 중앙에 녹화여의두문을 그려 넣었다. 후면 소로에는 외곽 긋기와 여의두문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전면 소로에는 대부분 녹화의 흔적이 남아있다(도 3).



도 2. 녹화여의두문

침차에서는 여의두문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마구리 직절 부분에 외곽선을 긋고 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한 후 문양의 외곽부분을 따라 선을 그어 공터를 구획하였다(도 4). 침차의 여의두문은 소로에 남아있는 문양의 흔적과 유사한데, 이를 통해 침차 여의두문 안에도 녹화가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뱃바닥은 안료의 박락이 심해 정확한 문양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안료의 흔적으로 보아 뱃바닥도 여의두문이 감싸진 녹화를 마주보게 배치하고 공터를 구획했을 가능성이 크다(도 5, 6). 또한 주심에 있는 침차에는 모두 공간이 조각되어 있는데, 공간에는 적색이 채색되었다.

단청에서 녹화여의두문은 주로 소로와 침차에서 많이 사용되며, 퇴량, 종량과 같은 수평 부재의 머리초 주문양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소로에 녹화여의두문을 그린 조선 전기 단청 사례로는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도 3. 전면 소로



도 4. 후면 소로와 침차

1) 본 논문에서 녹화여의두문이란 중앙에 놓인 녹화를 여의두문으로 감싼 문양이라 정의하였다.



도 5. 전면 공포



도 6. 후면 공포

창경궁 명정전 단청이 있으며, 이후 조선 후기, 그리고 현대 단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로초이다(표 3).

표 3. 조선시대 소로 녹화여의두문

조선 전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창경궁 명정전
조선 후기			
			
화엄사 각황전	선운사 대웅전		

적멸보궁 소로의 녹화여의두문은 외곽면 굽기 안쪽으로 하나의 문양을 온전하게 그려 넣었다. 반면 수덕사 대웅전<sup>1)</sup>, 무위사 극락전<sup>2)</sup>, 창경궁 명정전<sup>3)</sup>과 같은

1) 수덕사 대웅전에는 최소 4번 이상의 단청이 도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대웅전이 건립되었던 직후가 될 것이며, 이후 경자년(1360 또는 1420), 1528년, 1805년의 단청 개채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 전대 단청에 해당하는 하중도리 및 대량은 대웅전 건립직후인 1308년 직후에 그 외의 단청인 종량, 퇴량, 우미량, 뜯창방 머리초는 경자년에 조성된 것이 아닐까 하며, 건립직후에 조성된 단청을 개채하면서 보색만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진전된 형식인 새로운 초가 적용된 것으로 볼 때 경자년은 1360년 보다는 1420년 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문화재청,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문화재청, 2015, pp.100-104.)

조선 전기 단청의 소로에서는 적멸보궁 소로에 그려진 녹화여의두문보다 다소 크기가 확대되어 여의두문이 굵기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녹화여의두문의 확대 현상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화엄사 각황전<sup>4)</sup> 소로는 외곽변 굵기 안에 녹화를 중심에 그리고 문양을 따라 돌려실을 한 겹 두른 모습이다. 이는 전 시기의 소로와 비교했을 때 녹화여의두문이 확대되면서 여의두문의 아래 부분은 생략되고 말려들어간 양 끝부분만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녹화여의두문의 확장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선운사 대웅전 소로에서와 같이 녹화여의두문의 확장형에서 벗어나 겹녹화에 돌려실을 그린 형태로 자리 잡으며 향아리와 같은 장식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장식화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적멸보궁 소로의 녹화여의두문은 조선시대 소로의 녹화초와 비교해볼 때 소로초의 초기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적멸보궁 첨차에 그려진 녹화여의두문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첨차초의 구성을 살펴보면, 마구리 직절부분에 외곽선을 긋고 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한 후 문양의 외곽부분을 따라 선을 그어 공터를 구획하였다.

고려시대 단청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는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여의두문이 종량, 퇴량, 우미량, 하중도리장여 머리초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도 7, 8). 종량, 퇴량, 우미량에서는 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하였고, 하중도리장여에서는 머리초가 끝나는 부분에 여의두문을 나란히 배열하였다. 수덕사 대웅전에 그려진 여의두문은 끝부분이 뾰족하게 올라와있는 형태로, 이는 『영조법식』권 33 「채화작제도도양상」의 머리초 외곽형태를 구성하는 아홉 가지 양식과 유사하다(도 9, 10). 수덕사 대웅전의 끝이 뾰족한 여의두문은 적멸보궁에 그려진 여의두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해 머리초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의두문을 단청에 사용한 예는 고려불화에 묘사된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16관변상도(도 11)에는 머리초 형태는 아니지만 건물 수평부재에 여의두문을 그려 장식하고 있다.<sup>5)</sup> 이로 보아 단청에서 여의두문의

2) 무위사 극락전 우물천장은 1526년 조성된 것으로 우물천장 아래 단청의 시기는 1526년으로 볼 수 있다.(이수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단청의 조성연대에 대하여」, 한국미술사연구소, 2014.)

3) 명정전 단청은 1616년 창경궁의 영건 시 시행한 단청이 부분적인 수리를 제외하고는 내부에 남아 있다.(☞도화원, 『창경궁 명정전 단청기록화 조사보고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2023,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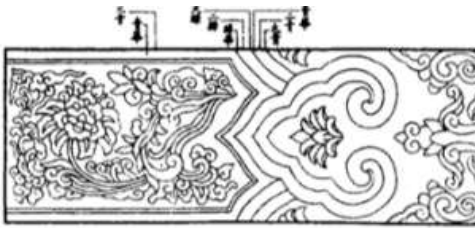
4) 각황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장육전을 1699년~1702년에 중건한 건물로, 건물 내부 후불벽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중건 당시의 단청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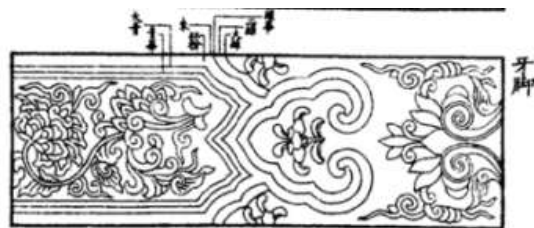
도 7. 수덕사 대웅전 종량머리초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2015, p.31.)



도 8. 수덕사 대웅전 하중도리장여머리초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2015, p.49.)



도 9. 『영조법식』 권 33  
「채화작제도도양상」 蠶量



도 10. 『영조법식』 권 33  
「채화작제도도양상」, 牙脚

사용은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작으로 짐작되는 본악사 소장 석가탄생도<sup>6)</sup>(도 12, 13, 14)에서 전각의 묘사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조선 초 단청 양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석가탄생도에 그려진 모든 건물의 수평부재는 머리초와 계풍 부분이 구획되어 있으며 머리초에 여의두문이 배열되었다. 또한 직휘까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단청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재의 길이에 따라 여의두문을 1열에서 4열까지 배열한 예도 있으며 여의두문 사이에 주화를 그려 넣은 것도 확인된다. 여의두문과 주화의 결합은 수덕사 대웅전 단청에서도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조선 전기에 자주 사용되던 단청 양식으로 생각된다.

5) 문화재청,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문화재청, 2015), p.100.

6) 본악사 석가탄생도는 화풍과 구성요소의 시기성 그리고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조선조 초기, 늦어도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정우택, 「조선왕조시대 釋迦誕生圖像 연구」, 『美術史學研究』Vol.250·251, 2006, p.298.)



도 11. <관경16관변상도>, 고려 후기, 일본 서복사



도 12. <석가탄생도>, 조선 15세기 후반, 본악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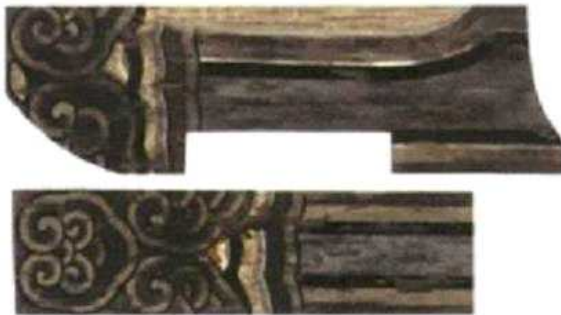
도 13. <석가탄생도>, 조선 15세기 후반, 본악사 소장



도 14. <석가탄생도>, 조선 15세기 후반, 본악사 소장

본악사 소장 석가탄생도에 그려진 여의두문은 위가 둥근 형태로 적멸보궁 여의두문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한 형식도 동일하다.

녹화여의두문이 머리초로 사용된 사례는 조선 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 이후의 사례들을 보면 단청 양식이 변화하면서 점차 정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도 15, 16).



도 15. 봉정사 대웅전 첨차



도 16. 송광사 국사전 첨차

적멸보궁 첨차머리초의 구성에서 주목할 부분은 머리초와 계풍의 구획이다. 적멸보궁 첨차 뒷목에는 계풍과 머리초 문양이 끝나는 외곽부를 따라 한선으로 굿기를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청에서 쇠첩, 쇠첩실, 떡당기를 사용하여 머리초를 마무리하는 방식과는 다르며, 이러한 머리초의 마무리 형식이 석가탄생도의 머리초와 동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 머리초와 계풍의 경계를 떡당기나 육색의 쇠첩실을 사용해 구분 짓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영조법식』 권 33 「채화작제도도양상」에 수록된 도안들을 살펴보면, 머리초 외곽을 끝단 문양에 따라 그어 구획하였는데 그 형태가 적멸보궁 첨차 굿기와 유사하다. 『영조법식』 권 33 「채화작제도도양상」 도안이 머리초의 외곽형태를 구성하는 아홉 가지 양식이라는 점에서 적멸보궁 굿기 형식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따라서 단청에서의 여의두문은 고려시대에 수평부재를 장엄하는 주요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여의두문이 머리초의 주문양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떡당기나 쇠첩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초와 계풍을 연결지어 구획한 것은 본악사 소장 석가탄생도와 『영조법식』에서 확인되는 형식으로, 적멸보궁 단청은 이른 조선 전기 단청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2) 둘레방석(도 17)7)

일반적으로 단청에서 둘레방석초는 중심에 문양을 두고 문양 외곽을 따라 실로 두른 형태를 말하며, 주로 장여나 개판에 시문되는 문양이다. 적멸보궁에서는 살미와 주심장여에서 둘레방석초가 확인된다(도 18, 19). 주심장여에 둘레방석을 그린 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문양의 양식은 현재 알려진 둘레방석 구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 17. 둘레방석(문화재청,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순천 송광사 국사전』, 2014, p.12.)

7) 본 논문에서 둘레방석이란 중심문양을 두고 주변을 문양과 선으로 둘러 방석과 같이 넓찍하게 구획한 문양을 말한다.



도 18. 전면 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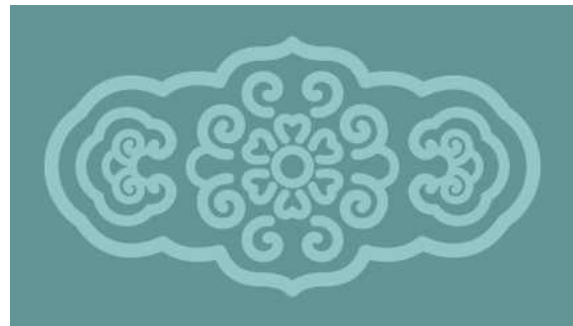


도 19. 후면 주심장여

적멸보궁에 그려진 둘레방석초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살미에 그려진 중심 주화를 실로 두른 유형(이하, 둘레방석 1유형), (도 20)과 주심장여에 그려진 주화에 녹화를 사방으로 두른 후 좌우로 녹화여의두문을 배치하고 그 형상을 실로 둘러 마무리한 유형(이하, 둘레방석 2유형), (도 21)이다.



도 20. 살미 둘레방석문양  
(둘레방석 1유형)



도 21. 주심장여 둘레방석문양  
(둘레방석 2유형)

둘레방석 1, 2유형 모두 중심문양을 따라 오금을 주며 실로 두른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문양을 능화문이라 한다. 능화문은 사방 끝이 뾰족한 마름모꼴 형태로, 네 꼭지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간 꼭지 모두 12인 것이 주를 이루며, 8꼭, 16꼭, 20꼭으로 변형된 예들도 있다.

능화문은 중국 도자기뿐 아니라 문양박, 칠기 또는 금속기에서 보이며, 고려시대의 도자나 금속공예에도 나타나고 있다.<sup>8)</sup> 따라서 적멸보궁에 그려진 둘레방석초의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능화문이 새겨진 공예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능화문이 새겨진 공예품은 요, 금, 북송에서 많이 확인되며, 남송에

8) 김리나, 「菱花文의 東西交流」, (한국미술사학회, 2004), p.64.

는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어 중국의 북방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문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이른 시기 유구로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은제접시가 있다(도 22). 이는 전형적인 12곡 능화문의 사례로 북송대 10세기경 유물로 추측된다. 요대에는 삼채도자에 능화문이 많이 표현되었다. 12곡은 아니나 8곡 능화문으로 요영성 박물관 삼채도자가 가장 이른 예이며, 이외에도 11세기 후반경 여러 능화형 삼채모란화쟁반들이 있다(도 23). 또한 서하의 자주요 계통 도자에서도 능화문이 새겨졌고, 북송 말부터 금대에 활발히 제작되었던 자주요 도자



도 22. <은제능화형접시>, 북송 10세기, 런던 대영박물관 (김리나, 「菱花文의 東西交流」, p.65.)



도 23. <삼채모란화쟁반>, 요 11세기 후반, (김리나, 「菱花文의 東西交流」, p.68.)

에서 대부분 능화문을 새긴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12곡 능화문은 금대 전축묘 벽돌과 서하 직물에서도 나타난다.9)

이로 보아 능화문은 중국 북방 문화권인 요, 서하, 금에서 유행한 문양임을 파악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문양들을 고려 12세기 순청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베개(도 24)와 해동고도 자연연구소 소장품인 청자매병은 12세기 초로 추정되는 유물로 고려 능화문 중 이른 사례에 속한다. 능화문은 청자 생산의 전성기였던 12세기에 청자와 함께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도 25, 26).



도 24. 청자베개, 고려 12세기, 익산 미륵사지 출토

9) 김리나, 앞의 논문, pp.66~69.



도 25.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고려 12세기



도 26. <청자상감동자문 매병>, 고려 12세기, 미국 시카고 미술관

능화문은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이어지면서도 장식문양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의 능화문 유행은 중국 원대보다는 더 일렀음을 알려준다.<sup>10)</sup>

10세기경 중국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능화문은 고대 중국건축기술서인 『영조법식』<sup>11)</sup>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공예품에 새겨진 능화문 안에는 모란, 산수, 봉황 등 다양한 소재를 회화적으로 그려 넣은 작품이 많다. 반면 『영조법식』에 그려진 능화문은 중심에 주화를 두고 좌우대칭으로 녹화를 구성한 도식화된 문양이다.

특히 『영조법식』 단과시체(團科柿蒂)(도 27), 권두시체(圈頭柿蒂)(도 28)는 적멸보궁 살미에 그려진 둘레방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영조법식』 사신합훈(梭身合暈)(도 29), 연주합훈(連珠合暈)(도 30)은 주심장여에 그려진 둘레방석과 비슷하다.

적멸보궁 살미에 그려진 둘레방석은 중심에 주화가 있는 12곡 능화문으로 사방 끝이 뾰족한 마름모꼴 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문양인 『영조법식』 단과시체,

10) 김리나, 위의 논문, p.77.

11) 『영조법식』은 고대 중국의 건축기술서로서 북송 哲宗代 李明仲이 황제의 칙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1103년에 초판이 간행되었으나 전해지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1145년에 중간된 것이다. 『영조법식』은 서목과 부록을 합하여 총 34권, 357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3,555조목을 수록하였다. 그 중 제 14권 채화작제도 제3점 오채편장편에는 각 부재에 도채하는 각종의 문양과 채색이 상세히 묘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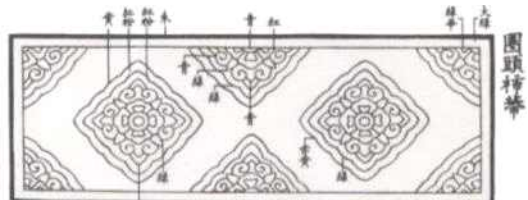
권두시체는 중심 주화에 사방으로 녹화 또는 여의두문을 그려 문양 외곽을 마름모꼴 형태로 마감하였는데, 두 문양 중 사방 끝이 뾰족한 권두시체 도안이 적멸보궁 살미 문양과 더 가까워보인다. 적멸보궁의 문양은 주화주변으로 녹화나 여의두문은 찾아볼 수 없지만, 주화와 둘레실의 공터가 꽤 널찍한 것으로 보아 문양이 둘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적멸보궁 주심장여에 그려진 둘레방석은 『영조법식』 사신합훈, 연주합훈 도안과 비슷하다. 이 도안들은 중심 주화를 두고 좌우로 길게 문양을 배치하고 있어 주심장여 둘레방석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주화를 사방으로 두른 녹화의 말린 방향을 비교해보면, 사신합훈의 녹화 배열과 같다. 또한 중심 문양 위아래에 있는 둘레실은 단과시체와 권두시체와 같이 각지게 하였고, 좌우 양끝은 둥글게 처리하고 있어 둘레실의 형태 또한 매우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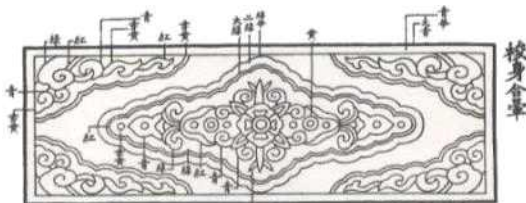
『영조법식』이 완성된 당시는 고려와 북송 간에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시기였던 점에서 『영조법식』과 고려 불화, 단청의 문양은 밀접한 개연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문양과 유사한 문양들이 고려 불화에서도 많이 확인되는데, 주로 불의 단문양으로 표현되었다. 고려 불화에 표현된 문양을 살펴보면, 마름모 형태는 아니지만 중심에 주화를 두고 『영조법식』의 권두시체 도안과 같이 사방으로 여의두문을 그렸으며 문양 외곽을 따라 실을 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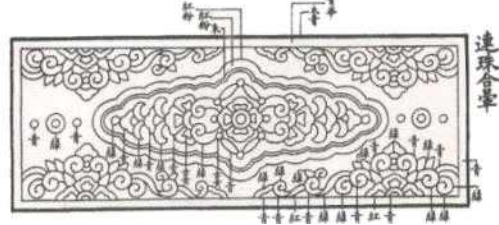
도 27. 『영조법식』 단과시체(團科柿蒂)



도 28. 『영조법식』 권두시체(圈頭柿蒂)



도 29. 『영조법식』 사신합훈(梭身合暈)



도 30. 『영조법식』 연주합훈(連珠合暈)

적멸보궁 둘레방석은 부수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주화와 녹화만으로 구성한 문양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의 둘레방석초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던

능화문을 단청에 사용한 사례로 적멸보궁 단청은 유일한 사례이며, 고려시대 능화문의 유행이 단청에 적용되었고, 이후 정형화된 둘레방석초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전기 단청에서는 능화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주문양을 중심으로 두고 둘레실을 두르는 머리초가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가 되면서 향아리, 곁녹화, 파련 등이 결합되어 더욱 장식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3). 따라서 적멸보궁에 그려진 능화문은 단청의 둘레방석의 시원적 형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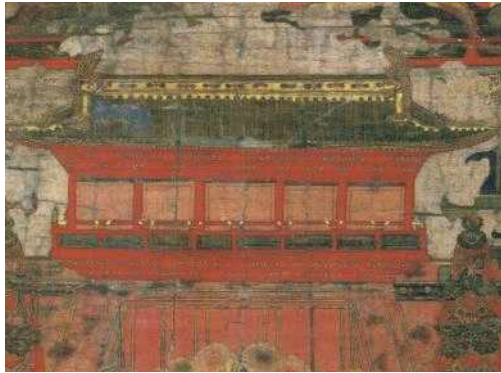
표 3. 조선시대 둘레방석 사용 사례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무위사 극락전 퇴량 머리초	송광사 국사전 외부 퇴량	선암사 대웅전 장여

### 3) 녹색위주의 단청

적멸보궁 단청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적색은 순각판, 공안, 뱃바닥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녹색위주 단청의 모습이다.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빛을 많이 받는 부재의 옆면은 녹색으로 도채하고 순각판, 뱃바닥과 같은 밑면에는 적색을 배색하여 단아하면서도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다.

고려 단청양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고려불화에 그려진 건물을 살펴보면, 적멸보궁과 같은 녹색위주의 단청 시작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13~14세기에 이르는 고려불화에서는 대부분 건물 전체를 붉은색으로 채색해 고려 13세기 단청은 녹색이 아닌 붉은색 위주의 단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도 31, 32). 이후 일본 서복사에 소장된 관경서품변상도(도 33, 34)에서는 기둥을 붉게 칠하고 도리와 공포부재 등은 녹색 계열로 칠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녹색위주의 단청이 적용된 고려불화 건축도는 14세기 불화에서 등장한다.<sup>12)</sup>



도 31. 미륵하생경변상도, 고려 1294년,  
일본 묘만지 소장



도 32. 관경십육관변상도, 고려 1323년,  
일본 지은원 소장



도 33. 관경서품변상도, 고려 14세기,  
일본 서복사 소장



도 34. 관경서품변상도, 고려 14세기,  
일본 서복사 소장



도 35. 관경십육관변상도, 1456년,  
일본 지은원 소장



도 36. 석가탄생도, 15세기 경,  
일본 본악사 소장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도 35)와 본악사 소장 석가탄생도(도 36)에 그려진 전각에서 붉은 기둥과 푸른 상부 부재들의 강한 색 대비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둥 상부 부재의 녹색위주 단청은 14세기부터 시작된 단청의 배색원리로써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임란

12) 이은희, 「고려시대 목조건축물의 上緣下丹 단청기법 수용」, (건축역사연구, 2016), p.20.

이후 난색의 사용이 증가하기 전까지 조선 초 단청에 있어 건물을 2단으로 분리하여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 4) 공안의 붉은 칠

적멸보궁의 속집 외출목 살미와 침차에는 모든 부재에 공안이 조각되어 있고, 주심부분에는 모각소로<sup>13)</sup>가 표현되어 있다(도 37). 녹색계열로 채색한 공포부에 공안부분만 붉은색을 칠하고 있어 공안조각을 별도의 부재처럼 보이도록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 공안을 붉은 색을 도채해 색상 대비를 보여주는 것은 15세기 석가탄생도(도 38)에서 명확히 나타나있어 이것 또한 조선 초 단청에서 녹색위주 단청과 함께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던 배색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37. 적멸보궁 속집 외출목



도 38. 석가탄생도, 15세기 경,  
일본 본악사 소장

#### 5) 물골법

적멸보궁 단청문양 채색은 2빛 도채로 이루어져있다. 뇌록가칠 위에 삼록을 사용해 선으로 문양을 그려 빛 단계를 표현하였다. 적멸보궁 도채법에 있어 구획된 면을 채색하는 일반적인 단청의 면채색이 아닌 일정한 선의 두께로 문양을 그려 초빛을 구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문양에 먹기화를 사용하지 않고 물골법으로 표현한 점도 특징적이다(도 39, 40).

건물의 모든 부재에서 동일한 선의 두께로 문양이 시문된 적멸보궁의 사례는 단청의 초빛과 이빛의 비율변화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단청에서 초빛과 이빛의 비율은 17세기에 접어들어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15~16세기에는 초빛이 이빛보다 작게 그려지다가 17세기에는 점차 이빛이 다소

13) 모각소로는 주심에서 침차와 살미가 교차되는 부분에 실제소로를 배치하지 않고 조각으로 소로의 형태만 표현한 것을 말한다.



도 39. 후면 14번 공포



도 40. 후면 16번 공포 살미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17세기 후반이 되면 초빛의 비율이 이빛보다 커지는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초빛 비율의 변화는 초빛의 선에서 면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탕칠 위에 한 선으로 문양을 그려 초빛을 형성한 적멸보궁 단청과 같이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송광사 국사전 단청의 도채기법을 보면 초빛이 이빛에 비해 작고, 마치 한 가지 두께의 붓을 사용해 문양을 그린 것 같은 모습이다(도 41, 42, 43). 이후 사례로 봉정사 대웅전과 통도사 대웅전의 초빛은 전대보다 커졌고 후기로 갈수록 초빛은 선이 아닌 면 채색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도 44, 45). 따라서 적멸보궁의 몰골법은 조선 전기 단청 기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도 41. 수덕사 대웅전 내부 첨차



도 42. 무위사 극락전 내부 대량머리초



도 43. 송광사 국사전 내부 대량머리초



도 44. 봉정사 대웅전 내부 첨차



도 45. 통도사 대웅전 내부 창방머리초

#### IV.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연대 고증

적멸보궁 속집 외출목의 공포부와 천정부에는 기존 단청에서 보여지는 기법과는 다른 생소한 문양과 기법들이 잔존해 있어 적멸보궁 속집 단청 연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연대는 앞장에서 살펴본 속집 단청의 양식적 특징들이 부합하는 시기를 묵서기록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적멸보궁에 그려진 단청 문양은 녹화여의두문과 둘레방석 2가지 문양으로, 두 문양 모두 기존 단청에 시문되는 문양보다 다소 작은 크기로 그려져 익숙치 않은 생소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문양의 형태와 구성에 있어 기존 단청들과 동일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로에 그려진 녹화여의두문의 경우, 사용 사례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해봄으로써 소로에서의 녹화여의두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소로 굿기 안에 그려진 녹화여의두문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적멸보궁 소로초는 조선 전기 단청인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등의 소로초 문양과 유사하며 이 중에서도 적멸보궁 소로의 녹화여의두문은 가장 작게 표현되어 소로 녹화초의 확장 이전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멸보궁 소로초는 조선시대 이른 시기 녹화초의 모습이며, 현재에도 흔히 그려지는 중심 녹화에 둘레실을 그리는 소로초의 시원형이라 할 수 있다.

적멸보궁 첨차에서는 녹화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하였다. 특히 조선 초 수덕사 대웅전 단청과 이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는 『영조법식』 권 33 「채화작제도도양상」에서 여의두문의 사용이 나타나며, 특히 15세기 불화로 추정되는 본악사 소장 석가탄생도에서는 모든 수평부재 머리초에 여의두문으로 구성된 모습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 단청에서 여의두문은 주요문양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살미와 주심장여에 그려진 둘레방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청의 둘레방석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살미에 그려진 문양은 고려청자 유행과 함께 장식문양으로 많이 그려졌던 능화문으로 현존 단청사례는 없지만, 중국 요, 금, 북송과 고려의 도자기, 금속공예품에서 주로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10세기경부터 시작하여 금대 공예품에서 12곡 능화문이 유행하였고, 고려 12세기경 청자에 능화문 장식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능화문은 『영조법식』 단과시체, 권두시체, 사신헌, 연주합훈 도안에서 확인되며, 이 도안들은 공예품에 새겨진 능화문보다 도식화된 모습으로 적멸보궁의 둘레방석과 매우 흡사하다. 특히 『영조법식』 사신헌, 연주합훈 도안은 주심장여에 그려진 둘레방석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적멸보궁 단청 문양의 양식적 특징을 종합해보면, 조선 전기 단청 사례와 유사점이 많이 확인되고, 고려시대에 유행한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 조

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청 양식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색채와 기법적인 면에서도 조선 초 단청양식과 부합한다. 먼저, 기둥 상부 부재에서 녹색위주의 채색을 한 것은 고려 14세기부터 나타나는 단청 양식으로 임란 이후 난색의 사용이 증가하기 전까지 조선 초 단청에 있어 건물 을 기둥 상·하부 2단으로 분리하여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적멸보궁에 그려진 모든 문양들은 동일한 선의 두께로 표현되었고 먹기 화를 긋지 않았다. 즉, 적멸보궁에는 몰골법을 도채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몰골법의 사용은 조선시대 단청에서 초빛의 비율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조선 전기 단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적멸보궁 도채기법과 같이 한 가지 두께의 붓을 사용해 문양을 그려 초빛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초빛의 비율은 이빛보다 작게 표현되었고, 이러한 초빛의 비율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넓어져 이빛보다 커지는 양상을 띄면서 더 이상 선이 아닌 면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에 적멸보궁의 속집 단청은 여러 문양과 채색기법으로 볼 때, 조선 초 단청 양식과 부합한다. 그리고 목서에 기록된 중창기록은 정관 17년 시창(643년), 성화 6년 무자 6월 24일 중창(1468년), 가정 20년 신축 6월 6일 중창(1541년), 천계 5년 4중창(1625년), 순치 6년 5창 9월 경인년(1650년)이다. 이에 1468년과 1541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속집의 건립시기를 사자암(1402년)과 상원사(1465년)의 중창 시기와 유사한 시기로 본다면, 속집의 중창은 1468년 일 가능성이 있다.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문양을 시문해 고려시대 단청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단청 양식 변화를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원형을 보여주는 단청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조선 15세기 후반에 시행된 단청으로 추정된다.

## V. 맺음말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속집과 겹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 구조의 건물이다. 후대에 겹집이 형성되면서 속집 단청은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다. 현재 적멸보궁의 속집과 겹집 사이의 복도 반자를 해제하면 속집 외출목 부분에서 고식으로 추정되는 단청의 흔적이 확인된다. 속집 후면부는 비교적 선명한 문양을 간직하고 있지만, 일조량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면부는 안료의 열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전면과 후면에 반전되어 나타나는 단청 문양을 증첩해 분석하면 온전한 적멸보궁 단청 문양을 추정해볼 수 있다.

적멸보궁 속집 외출목 공포부와 천정부에는 기존 단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양과 기법이 잔존해 있어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개채시기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적멸보궁 단청의 채색기법과 문양 양식을 분석해보면, 조선 초 단청양식과 부합하며, 고려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단청의 특징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유행한 문양을 시문한 것을 통해 고려시대 단청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 단청 양식의 시원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외기도리에서 확인된 묵서에 따르면, 적멸보궁은 643(정관 17년) 처음 건립되었고, 1468년(성화 6년)에 중창되었으며, 이후 1541년(가정 20년), 1625(천계 5년), 1650년(순치 6년)에 걸쳐 여러 차례 중창되었다. 증도리 묵서와 『증대적멸보궁중창기』 기록에 따르면 1767년(건륭 32년)과 1875년에 각각 6차, 7차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적멸보궁 속집은 상원사와 주변 암자들의 중창 시기 및 건축 양식을 토대로, 1468년(성화 6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664년 윤선거의 『노서유고』와 1708년 조덕린의 『옥천선생문집』에서 적멸보궁을 이중벽으로 묘사한 점과 현판 기록을 바탕으로, 1650년 5차 중창 때 겹집이 형성되고 현판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1468년에 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단청은 고려와 조선 초 단청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15세기 단청 사례로서, 단청편년의 기준을 마련하며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사료

- 『노서유고』 권 3 「파동기행」  
『世祖實錄』 38  
『陽集』 卷13記類 「五臺山觀音庵重創記」,  
『陽村集』 卷13 記類 「五臺山獅子庵重創記」  
『오대산사적』 「我朝本山事蹟」  
『愚潭集』 「山中日記」

### 2. 보고서

- 문화재청,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응전』,  
문화재청, 2015.  
문화재청, 『안동 봉정사 대응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평창군·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중대사자암, 『월정사 적멸보궁 학술조사 보고  
서』, (주)조계종출판사, 2016.

### 3. 논문

- 김리나, 「菱花文의 東西交流」, 『미술사학연구』No.242, 한국미술사학회, 2004.  
염중섭, 「사상 : 자장의 신라오대산 개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2) -민지의 〈제  
일조사전기〉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43, 온지학회, 2015.  
이수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단청의 조성연대에 대하여」, 『강좌미술사』  
Vol.43, 한국미술사연구소, 2014.  
이은희, 「고려시대 목조건축물의 上緣下丹 단청기법 수용」, 『건축역사연구』  
Vol.25No.5,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  
정우택, 「조선왕조시대 釋迦誕生圖像 연구」, 『美術史學研究』Vol.250·251,  
2006.  
한상길,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 『한국선학』30, 한국선학회, 2011.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속집 단청 연대 고증」 토론문

김석곤(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속집 단청연대 고증을 위해 발표자는 적멸보궁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적멸보궁의 건립시기를 1400년대로, 현재 적멸보궁의 묵서기록 중 ‘무자(1468년) 6월 24일’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적멸보궁의 단청의 현황에 대해서 적멸보궁 속집에서 고식의 단청흔적이 확인되는 부재는 외출목 첩차와 소로, 살미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적멸보궁 속집 외출목 단청은 반자 안쪽에 감춰져있어 비교적 안료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문양의 유추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적멸보궁 단청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순각판과 공간에만 부분적으로 적색을 사용하였으며, 첩차, 소로, 살미 모두 뇌록바탕에 문양을 밝은 녹색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청의 특징으로는 먼저 소로에는 뇌록바탕에 밝은 녹색을 사용해 부재 가장 자리를 선으로 긋고 중앙에 녹화여의두문을 그려 넣은 것과 다른 사찰의 소로문양을 비교하여 적멸보궁 소로의 녹화여의두문은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선시대 소로의 녹화초와 비교해보면 현재 소로초의 시원형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멸보궁 첩차에 그려진 녹화여의두문의 구성에 대하여 마구리 직절부분에 외곽선을 긋고 여의두문을 마주보게 2열로 배치한 후 문양의 외곽부분을 따라 선으로 그어 공터를 구획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양이 사용된 예를 고려시대 단청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는 수덕사 대웅전에서 종량, 퇴량, 우미량, 하중도리장여 머리초에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단청에서의 여의두문은 고려시대에 수평부재를 장엄하는 주요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여의두문이 머리초의 주문양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먹당기나 쇠첩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초와 계풍을 연결지어 구획한 것은 본악사 소장 석가탄생도와 『영조법식』에서 확인되는 형식으로, 적멸보궁 단청을 이룬 조

선 초기 단청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적멸보궁에서는 살미와 주심장여에서 돌레방석초가 확인된다고 하였으며, 적멸보궁에 그려진 돌레방석초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고, 살미에 그려진 중심 주화를 실로 두른 유형(이하, 돌레방석 1유형)과 주심장여에 그려진 주화에 녹화를 사방으로 두른 후 좌우로 녹화여의두문을 배치하고 그 형상을 실로 둘러 마무리한 유형(이하, 돌레방석 2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돌레방석초와 같은 능화문은 중국의 공예품에서도 보이는데, 요, 금, 북송에서 많이 확인되며, 남송에는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어 중국의 북방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문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능화문은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이어지면서도 장식문양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의 능화문 유행은 중국 원대보다는 더 일렀음을 알려준다고 하였으며, 10세기경 중국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능화문은 고대 중국건축 기술서인 『영조법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멸보궁 살미에 그려진 돌레방석은 중심에 주화가 있는 12곡 능화문으로 사방 끝이 뾰족한 마름모꼴 형태이며, 적멸보궁 주심장여에 그려진 돌레방석은 『영조법식』 사신합훈, 연주합훈 도안과 비슷하고, 고려 시대에 유행하였던 능화문을 단청에 사용한 사례로 적멸보궁 단청이 유일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적멸보궁 단청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적색은 순간판, 공간, 뱃바닥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녹색위주 단청의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빛을 많이 받는 부재의 옆면은 녹색으로 도채하고, 순간판 · 뱃바닥과 같은 밑면에는 적색을 배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적멸보궁의 속집 외출목 살미와 첨차에는 모든 부재에 공간이 조각되어 있고, 주심부분에는 모각소로가 표현되어 있고, 녹색계열로 채색한 공포부에 공간부분만 붉은 색을 칠하고 있어 공간조각을 별도의 부재처럼 보이도록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적멸보궁 도채법에 있어 구획된 면을 채색하는 일반적인 단청의 면채색이 아닌 일정한 선의 두께로 문양을 그려 초빛을 구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또한 문양에 먹기화를 사용하지 않고 몰골법으로 표현한 점도 특징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적멸보궁의 속집 단청은 여러 문양과 채색기법으로 볼 때, 조선 초 단청

양식과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목서에 기록된 증창기록 중에 정관 17년 시창(643년), 성화 6년 무자 6월 24일 증창(1468년), 가정 20년 신축 6월 6일 증창(1541년), 천계 5년 4증창(1625년), 순치 6년 5창 9월 경인년(1650년)있는데, 이중에 1468년과 1541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속집의 건립시기를 사자암(1402년)과 상원사(1465년)의 증창 시기와 유사한 시기로 본다면, 속집의 증창은 1468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문양을 시문해 고려시대 단청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단청 양식 변화를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원형을 보여주는 단청 사례로 보아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조선 15세기 후반에 시행된 단청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발표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속집 단청의 시기를 발표자께서는 15세기 후반에 시행된 단청으로 추정하셨는데, 기록과 문양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15세기 이후에도 증창 기록이 있으며, 17세기의 문집에서는 본격적으로 ‘적멸’이라는 용어가 보이기 시작하고, ‘적멸보궁’이 최초로 확인되는 글은 윤선거의 『노서유고』 「파동기행」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곁집은 여러번 단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17세기 단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1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속집 단청은 연혁으로 보았을 때 세조와 관련된 여러 기록도 있고, 발표자께서 추정하신 연대도 세조와의 관련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결국 왕실 즉 궁궐단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대 적멸보궁 속집 단청문양을 조선전기 궁궐단청의 영향을 받은 문양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다섯 번째 특징으로 적멸보궁 도채법에 있어 구획된 면을 채색하는 일반적인 단청의 면채색이 아닌 일정한 선의 두께로 문양을 그려 초빔을 구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또한 문양에 먹기화를 사용하지 않고 몰골법으로 표현한 점도 특징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채법은 기존의 단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채법이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